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스물다섯 번째 수

에스겔 제6장

Jeff Pippenger

2026-08-11

나는 성소 안에서의 에스겔과 이사야와 요한의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진리의 노선을 제시하는 『증언집』의 한 구절을 인용해 왔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기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는 내게 말한 그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돌이켜 보니 일곱 금 촛대를 보았더라. 요한계시록 1:10-12.

밧모 섬에서, 그리고 이어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요한이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환상은, 화잇 자매가 우리에게 알려 주듯이, 다니엘이 그의 책 10장에서 본 바로 그 환상이다.

“그 날들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고 있었느니라. 내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라,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의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닭의 발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 10:2-6).

“이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밧모 섬에서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 요한이 받은 묘사와 유사하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지않은 위격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주께서는 또 다른 하늘의 사자와 함께 오셔서 말일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성화된 생애』, 49.

처음 아홉 절은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인봉 해제되는지를 밝힌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고, 예수께서 그것을 가브리엘에게 주셨으며, 가브리엘은 요한에게 주어 요한이 그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보내도록 사명을 부여하였다. 이사야도 6장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고, 에스겔도 2장과 3장에서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 요한은 사명을 받을 때 죄수였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으며, 이사야는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바퀴 속에 바퀴들이 있어 그 배열이 너무도 복잡하였으므로, 처음 보기에는 그것들이 에스겔에게 전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움직일 때에는 아름다운 정확성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움직였다.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사파이어 보좌 위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셨으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였다. 그 광경의 두렵도록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일어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기별이 그에게 주어졌다.” Testimonies, 751.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이 환상은 에스겔의 마음이 음울한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던 때에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땅이 황폐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장차 올 시대들을 위한 교회의 역사를 열어 보이시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곧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을 통하여, 구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지시는 관심과 돌보심에 대한 확증을 그에게 주셨다. ...”

“이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크고도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다. 머지않아 모든 살아 있는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될 한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과거의 논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논쟁들도 생겨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전개될 장면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되지 못한 것들이다. 사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헌법을 변경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확보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위기는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 세상은 통치자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의 계획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늘의 위엄 되시는 분께서는 나라들의 운명뿐 아니라 당신의 교회의 일들까지도 친히 맡아 다스리신다. ...”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분의 손을 두고 계셨다. 이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신적 능력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애가 순결하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번개와 같은 신속함으로 생물들 사이를 오가는 밝은 빛은, 이 일이 마침내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속도를 나타낸다. ...”

“형제들이여, 지금은 애통과 절망에 빠질 때가 아니요, 의심과 불신에 굴복할 때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큰 돌로 막히고 로마의 봉인으로 봉해진 요셉의 새 무덤 안에 계신 구주가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신다. 그분은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나라들의 다툼과 소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의 분량을 재신다. 그분은 각 영혼을 시험해야 하는

풀무불을 지켜보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5, 752-754.

성경의 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별이 성소에서의 이 선지자의 경험으로
예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선포하도록 임명받은 그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든 영혼”을
시험하는 “풀무불”은 말라기 3장의 풀무이다.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으랴?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정결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고대의 해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2-4.

은을 제련하는 자는 은이 자기 얼굴을 비출 만큼 순수해졌을 때, 그 은이 용광로 속에
있어야 할 정확한 시간이 다 찼음을 안다. 고대에 은이 제련되던 방식에 관한 이 사실은,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사역동사 “marah”와 일치한다. 이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여, 십사만 사천의 기치의 일부가 될 후보자들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제거하고 계신다. 이 기간 동안 그분은,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마음과
생애에 있어 순결하게 될” “경우에,”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다니엘 10장에서도
같이 어떤 이들은 그 경험에서 도망하지만, 다니엘로 상징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그 위대한 거울 같은 이상을 보는 자들은, 이사야가 보여 주듯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이 닿게 될 것이며, 배도한 교회와, 그 다음에는 세상에 전할 기별을 주기 위하여
정결하게 되고 준비될 것이다.

그 기별은 성소 안에 있는 충성된 영혼들에게 제시된다. 레위기 23장은 오순절 절기와
나란히 놓일 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믿음으로 볼 때, 그
장의 기별들의 구조는 풀무불 시험이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 안의 세 이정표를 식별해
준다. 신적으로 심오하게도, 23장의 예언적 구조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에스겔을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곧 그 달 초닷새였으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다섯째 해였다. 에스겔 1:1, 2.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치는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 포위한 일 가운데 셋째 포위가 기원전 587년에 있기 오 년 전,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있다. 그 구절의 서른째 해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으로부터
삼십 년 후이며, 또한 다섯째 해 다섯째 날이니, 이로써 숫자 오가 에스겔의 증언 위에
놓이게 된다. 서두의 두 절에서 우리는 삼십이 한 번 명시되고 숫자 오가 세 번 언급되는
것을 본다. 오순절 절기와 일치하도록 배열된 레위기 23장의 구조 안에서, 삼십으로
표상되는 둘째 시험은 나팔절에 이르고, 오일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다시 오일은
속죄일에, 또 오일은 이른 비(오순절)와 늦은 비(초막절)를 둘 다 표상하는 이정표에
이른다. 그 구조는 삼십 다음에 오의 세 단계가 이어지는 형태를 제시한다. 에스겔은

성전에 있으며, 레위기 23장의 구조는 언약궤이다.

그 역사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표상된, 곧 임박한 일요일 법을 예표하는 상징적 포위의 오 년 전 시점에 있음을 증언한다. 숫자 '오'는 레위기 23장의 구조에서 주요한 요소이며, 숫자 삼십도 그러하다.

이 글들에서 이미 제시되었듯이, 그 장의 처음 스물두 절을 마지막 스물두 절과 나란히 맞추고, 이어서 그 두 줄의 스물두 절을 오순절 절기와 함께 정렬하면, 말라기의 풀무불인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분명하게 예증된다. 그 세 단계는 첫째 단계와 셋째 단계 안에 알파와 오메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단계를 나타내는 네 개의 이정표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이 있고, 그 뒤에 보리의 초실절 제물이 있으며, 이어서 무교절의 끝까지 '닷새'가 있다. 이 네 개의 이정표가 첫 번째 시험을 이루며, 예수께서는 언제나 처음으로 끝을 예증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역시 네 개의 이정표로 이루어져 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으며, 이어 속죄일이 있고, 그로부터 닷새 후에 오순절과 초막절이 둘 다 도래한다. 오순절은 이른 비의 상징이고, 초막절은 늦은 비의 상징이다. 레위기 23장의 모형에서 오순절과 초막절은 둘 다 일치한다.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적당한 비를 주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요엘 2:23.

최종적인 시험과 정결의 과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기초적인 시험이었으며,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 이미 시험을 받았던 무리를 분열시킨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의 논쟁으로 상징되었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오래 지속되어 온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될 것이다. 옛 논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만 역할을 담당해 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 그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귀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바위처럼 굳게 서서, 그들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 47.

레위기 23장에서 첫 번째 시험은 세 개가 연속되고 그로부터 닷새 후에 무교절의 끝이 따르는 예언적 결합으로 제시된다. 유월절은 첫째 날이었고, 무교절은 둘째 날이었으며, 초실절 봉헌은 셋째 날이었다. 닷새 후에 무교절이 끝났다.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의 예언적 구조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서도 또한 제시된다. 세 개의 이정표에 이어 하나가 따르는 그 세 번째 이정표에서, 나팔절은 첫째 날이고, 닷새 후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으며, 다시 닷새 후에 속죄일이 따르고, 또 닷새 후에는 오순절과 초막절이 함께 임박한 일요일 법을 표상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제시된다.

무교절이 끝나는 때와 나팔절 사이에는 삼십 일이 있으며, 이는 제사장의 상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적 예시 안에 제시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둘째 시험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세 이정표를 예시하는데, 이는 그 세 이정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 뒤에는 다섯 날이 이어져 넷째 단계에 이르는데, 이는 무교절의 끝으로 상징된다. 침례는 요한이 자신의 메시아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의 그 짧은 한 순간 속에 이 세 단계를 제시한다. 봄 절기들은 이 세 단계를 각각 하루씩 떨어뜨려 놓고, 가을 절기들은 이 세 단계를 각각 다섯 날씩 떨어뜨려 놓는다.

봄 절기의 첫 번째 시험을, 다섯 날 후에 하나의 이정표가 따르는 세 개의 이정표의 결합으로 적용하고, 이어서 가을 절기를, 다섯 날 후에 하나의 이정표가 따르는 세 개의 이정표로 적용할 때, 하나의 예언적 구조가 확립되는데, 그것은 세 개에 이어 다섯 날이 따르는 알파 이정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삼십 일이 따르며, 또 이어서 다섯 날이 따르는 세 개의 이정표로서의 가을 절기의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첫 번째 시험이 총 다섯 날을 포괄하고, 이어서 삼십 일의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다섯 날의 이정표에 이르는 것을 보여 준다. 오 더하기 삼십 더하기 오는 사십이다 ($5 + 30 + 5 = 40$).

그리스도의 침례 직후에는 곧바로 사십 일이 이어졌고, 그것은 세 가지 시험으로 끝이 났다. 레위기 23장의 구조에는 오순절 절기와 결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장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나타낸다.

레위기 23장의 봄 절기들과 가을 절기들은 두 안식일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 두 안식일은 두 덮는 그룹을 나타내며, 레위기 23장과 일치하도록 정렬된 오순절 시기의 이정표들은 법궤와 두 덮는 그룹을 나타낸다. 에스겔은 1장에서 성소로 데려감을 받는데, 그가 그리로 데려감을 받을 때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포위 공격의 다섯 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포위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일요일 법은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과 초막절로 표상된다. 에스겔은 서른째 해에 있으며, 서른은 말라기 3장의 풀무불을 이루는 세 시험 가운데 둘째 시험의 기간이다. 둘째 시험은 삼십 일로 표상되는데, 마치 에스겔이 역사가들이 요시아의 대유월절이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있는 것과 같다. 에스겔은 열여덟 달 동안 지속된 포위 공격의 오 년 전에 있으며, 그는 성전 안에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는 마지막 세 시험의 한가운데이다. 베드로도 세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파니온), 변화산, 그리고 십자가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파니온)에 있었다.

기원전 592년에 에스겔은 초자연적으로 “말 못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실 때에만 말하였다. 그 상태는 기원전 585/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포위가 시작되던 날, 곧 그의 “눈의 기쁨”이 죽던 날에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눈의 기쁨”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는 그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을 상징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여덟째 반열의 제사장인 세레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병어리가 되었는데, 에스겔도 (환상 중에) 바로 그곳에 있었으며, 그 역시 약 아홉 달 동안 병어리로 있었다. 요한이 태어난 후 여덟째 날, 곧 요한이 할례를 받던 때에야 그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성소에서 말 못 하게 된 두 선지자. 그리스도를 성소에서 바라보다가 말 못 하게 된 세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이었다. 10장에서 다니엘은

성소에 있으며, 세 번의 접촉 가운데 두 번째 접촉을 받는 바로 그때에 그는 말 못 하게 된다. 중간 지점에서 다니엘은 말 못 하게 된다.

그가 내게 이 같은 말을 하였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보라, 인자들의 모양과 같은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므로 내가 곧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이 내게 밀려와 내가 힘을 전혀 간직하지 못하였나이다. 다니엘 10:15, 16.

말씀하심

“말하는 것”의 상징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때에, 곧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발람의 나귀가 말하며, 하박국의 묵시가 말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소 안에 있는 동안 병어리가 되게 된 세 명의 말 못하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말한다. 스가랴의 경우에는, 그가 자기 아들의 새 이름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말하니, 이는 새 이름을 받는 빌라델비아인들을 예표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12.

사가라는 요한의 새 가족 이름을 기록할 서판을 받았다.

여드레 되던 날에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였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그를 무엇이랴 이름하려 하는지 묻거늘,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받아 쓰되,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니,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1:59-64.

요한의 새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일치하며, 스가라라는 이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스가랴의 불신으로 표상되는 라오디게아와 일치한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들을 다루며, 마지막 날들은 셋째 천사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그 기별을 가져온 천사는 반드시 셋째 천사여야 한다. 스가라는 주께서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지나치실 것임을 이해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선지자들 안에 나타난 음성의 회복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 있으나, 우리는 계속하여 요시야의 예언적 계보에 대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요시야의 수레바퀴

우리는 기원전 622년 요시야의 유월절에서 시작된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를 다루었으나, 요시야의 계보는 기원전 622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한 반역은 사울 왕이 다스리게 될 사십 년을 표시하였고, 이어서 다윗 왕이 다스릴 사십 년이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다스릴 사십 년이 있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은 기원전 1097년에 일어났으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가이사뿐이로소이다”라고 선언하였던 십자가에서 끝난 하나의 예언적 반역의 계보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외쳐 이르되, 그를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15.

기원전 1097년에 세 왕이 각각 사십 년씩 통치하였고, 그 후 기원전 977년에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다.

그 후에 그들이 한 왕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3:21.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에 삼십 세였고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것은 칠 년 육 개월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은 삼십삼 년이었다. 사무엘하 2:4, 5.

솔로몬의 통치는 주전 971년에 시작되었고, 성전의 기초는 솔로몬 제4년(주전 967년)에 놓였다. 건축은 7년 동안 계속되었으며(열왕기상 6:37-38), 성전은 솔로몬 제11년 여덟째 달에 완공되었다. 공식적인 봉헌은 일곱째 달(에다님 월),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졌다(열왕기상 8장; 역대하 5-7장). 왕들, 성전, 그리고 민족은 각각 역사 속에서 490년의 기간으로 나타나며, 이 기간은 왕들, 성전, 혹은 민족과 관련하여 예언적 기간을 뚜렷이 표지한다.

다니엘은 기원전 607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성서 연대기학자들의 대다수는 기원전 605년으로 본다. 역사적 기록은 예언적 증언과 일치해야 하며, 기원전 1097년에 왕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되는 역사의 선 위에 역사적으로 표지된 사건들의 상징성은 여러 예언적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기원전 607년이 정확한 적용이며, 기원전 605년이 아님을 요구한다. 기원전 607년은 왕들의 계보에서 사백구십 년의 끝을 표시할 뿐 아니라, 그 계보 안에 나타나는 칠십 년의 세 가지 주요 표상 가운데 하나를 시작하기도 한다. 기원전 607년은 기원전 677년에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간 때에 시작된 칠십 년의 끝을 표시한다. 사백구십 년이라는 상징의 첫 번째 표상(그 계보 안에서 세 증인을 지닌)은 칠십 년의 세 증인 가운데 하나가 끝나고 또 다른 칠십 년의 증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며, 그 수학적 구조는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607년을 증언한다.

주전 1097년부터 주전 607년까지의 왕들과 관련된 490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그 계보 안에는, 또한 솔로몬 성전의 봉헌으로부터 주전 516년 스룹바벨에 의한 포로 귀환 후 성전의 봉헌까지의 490년도 있다. 이 490년은 솔로몬이 그의 제11년에 행한 봉헌으로부터의 420년에,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이 황폐하였던 70년을 더한 것으로서, 합하여 490년이 된다. 아닥사스다의 세 번째 칙령은 그로부터 59년 후인 주전 457년에 내려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하여진"(잘라 내어진, 다니엘 9:24) 490년의 시작을 표시하는데, 이 기간은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기 34년에 끝났다. 물론, 주전 1097년에 하나님과 예언의 영을 거절한 기초적인 배도로 시작하여 스테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끝나는 그 예언적 계보 안에는, 그 밖에도 심오한 연대기적 증언들이 많이 있다. 이 증언 안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예언적

수레바퀴를 발견한다.

내가 “기초적 배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계보의 시작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을 두고자 한 때를 드러내며, 그로써 이스라엘의 인간 왕정의 기초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이것을 요시야의 바퀴를 위하여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기초”를 뜻하는 이 바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와 기초적 배도를 함께 상징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죽고 열두 지파가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위조된 예배 제도를 봉헌한 일은 불순종한 선지자에 의해 책망을 받았으며, 그의 책망 속에는 요시야라는 이름의 장차 올 왕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여로보암과 북방 열 지파의 기초적 배도 때에, 주전 622년의 큰 유월절로 표지되는 요시야와 그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 예고되었다. 그 부흥은 모세의 기록들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배도한 일에 대하여 심판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모세의 기록들에 있는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낭독되었을 때, 그것은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다. 또한 장차 요시야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불순종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제기한 기초적 배도에 대한 예언적 정죄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모세의 저주라고 부른 바와 같이, 그것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며, 재림교의 기초 진리들의 상징인 윌리엄 밀러의 기초적 발견이 되었다. 1840년 8월 11일 밀러의 기별에 부여된 능력은 1838년과 1840년에 “요시야” 리치가 행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863년에 그 기초들은 제쳐졌고, “일곱 때”는 필라델피아적 밀러파의 기초 진리들만의 상징이 아니라, 또한 그 기초들에 대항하는 라오디게아적 밀러주의의 반역의 상징이 되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밀러파의 역사는 “요시야”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 글자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요시야의 바퀴는 사울 왕의 마술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어서 일요일 법령 때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데까지 이른다. 에스겔에 나타난 요시야의 바퀴는 이제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절정으로서 봉함이 풀려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겠다.